

비즈 프리즘 | 요금제로 승부수 띄운 KT, 이통3사 경쟁 격화

“데이터 무제한”...5G 판 흔든 KT

8만 원부터 데이터 완전 무제한 선공 KT·LG 공세 맞선 SKT 반격 관심 고가 위주 5G요금제, 서민 부담 논란

KT가 5일 시작된 '5G 경쟁'의 판을 요금제로 흔들었다. 월 8만 원짜리 요금부터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해 월 7만5000원에 150GB를 주는 경쟁사 상품과 차별화 한다는 공격적인 마케팅 카드를 내놓았다.

KT는 2일 서울 중로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G 요금제 4종을 공개했다. 먼저 데이터를 속도제한 없이 완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월 8·10·13만 원 세 가지 요금제를 선보였다. 8·10만 원짜리 요금제는 해외에서 최대 100Kbps, 13만 원 요금은 최대 3Mbps 속도로 로밍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10·13만 원 요금제는 VVIP 멤버십과 단말 분실파손 보험 등의 혜택도 추가했다. KT는 이와 함께 데이터 이용량이 많지 않은 소비자를 위한 5만5000원짜리 요금제도 내놓았다. 기본 데이터 제공량은 8GB다.



박현진 KT 5G 사업본부장이 2일 서울 중로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G 요금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T는 데이터를 속도제한 없이 완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5G 요금제를 선보였다. 사진제공 | KT

박현진 KT 5G 사업본부장이 2일 서울 중로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G 요금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T는 데이터를 속도제한 없이 완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5G 요금제를 선보였다. 사진제공 | KT

이날 발표한 KT 요금제는 경쟁사와 비

교해 다소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SK텔레콤의 요금제는 월 5만5000원(8GB)·7만5000원(150GB)·9만5000원(200GB)·12만5000원(300GB) 등 4개 구간이며 LG유플러스는 월 5만5000원(9GB)·7만5000원(150GB)·9만5000원(250GB) 등

3가지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은 없다. 다만 LG유플러스는 6월 말까지 9만5000원짜리 요금제를 선택약정하면 월6만6000원(24개월간)에 데이터 1000GB(2019년 말까지)를 쓸 수 있는 프로모션을 보인다.

이제 관심은 3일 요금제를 정식 발표하는 SK텔레콤으로 쏠리고 있다. KT의 파격 요금제와 LG유플러스의 대규모 프로모션에 대응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KT의 파격 요금제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의 5G 요금제가 서민들을 위한 혜택이 부족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은 커운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최저가 요금제가 LTE보다 2만 원가량 비싼데다, 그마저도 가상현실(VR) 등 5G 기반 콘텐츠를 제대로 즐기기에 데이터 제공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한눈으로 보는 경제 2일

코스피지수	2177.18	▲	+8.90
코스닥지수	739.57	▲	+2.76
日 닛케이 지수	2만1505.31	▼	-3.72
중상하이 종합	3176.82	▲	+6.46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706	▼	-0.024
환율 (원·달러)	1136.4	▲	+2.7
국내금값 (원/그램)	4만7050.75	▼	-11.94

2022년까지 외래관광객 2300만 유치 지역·콘텐츠 등 '관광혁신전략' 발표

정부는 2일 오후 인천 경원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13개 관련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관광유관 기관 및 학계,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까지 외래관광객 2300만 명을 목표로 지역·콘텐츠·관광산업 혁신 등 5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광역시 1곳을 '국제(Global) 관광도시'로 선정해 지원한다. 기초지자체 4곳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해 지역관광 허브로 육성한다.

관광콘텐츠 혁신으로는 K-팝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방탄소년단 K-팝 콘서트 개최를 지원하고, 대규모 K-팝 축제를 내년부터 연 2회 개최한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 신설과 국제대회 개최 등을 통해 e-스포츠 체험을 새 관광콘텐츠로 육성한다. 비무장지대(DMZ) 민통선 이북지역 일부와 철거감시초소(GP)를 있는 '평화의 길 10선'을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해 시범운영하고, 평화관광 테마열차 사업도 진행한다.

관광산업 정책에서는 2022년까지 관광스타트업 1000개를 발굴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융복합 관광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을 최대 5000만 원으로 늘린다. 컨설팅, 보육센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관광기업육성펀드를 2022년까지 최대 2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신용보증제'도 올해 안에 도입한다.

김재범 기자

삼성증권 '청소년경제교실' 21만 명 참여...미래 경제주역 키운다

14년째 순항...올해 1000여 명 참여 대학생 '야호' 봉사단 1500명 돌파 임직원의 적극적 멘토링, 호응 비결

미래의 경제 주역을 키우는 삼성증권의 사회공헌활동 '청소년경제교실' 참여자가 21만 명을 넘었다.

햇수로 14년째를 맞은 '청소년경제교실'은 올해도 1000여 명의 청소년이 수업에 참여했다. 또한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으로 참여하는 대학생봉사단 '야호' 10기가 2월 출범하면서 '야호' 누적 멤버수도 1500명을 돌파했다. 야호 10기 멤버들은 연말까지 전국 84개 사회봉사기관에서 '청소년경제교실'의 강사로 활동한다. 또한 삼성증권이 주관



삼성증권 '청소년경제교실' 강사로 활약 중인 야호 10기들의 수업 모습. 사진제공 | 삼성증권

하는 임직원 봉사활동, 임직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청소년경제교실'이 이처럼 장기간 높은 호응을 얻으며 순항하는 비결은 교육

을 맡은 야호 멤버들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와 이들을 멘토링하는 삼성증권 임직원들의 적극적 참여 때문이다. 실제로 3월18일 서울 강남구 수서명화종합사회

복지관에서 열린 올해 첫 수업에는 10년간 야호 멤버들의 멘토를 맡고 있는 선창균 지점장과 야호 3기 출신의 경력 5년 차 박선하 주임이 함께 했다. 야호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박주임은 "단순히 경제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갈 때 아이들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했다.

현재 삼성증권에는 박 주임을 포함해 9명의 야호 출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증권에서 고객 자산관리는 물론 디지털마케팅, 파생상품 운용 등에서 활약 중이다.

선창균 지점장은 "야호 출신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직원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야호 멤버들은 물론 경제능력을 수료한 청소년들도 후배로 입사해 경제교실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정욱 기자 jiyaj@donga.com

“사이버범죄, 사전예방 수칙만 지켜도 피해 최소화”

김현걸 이사장 “백신으로 주기적 검사”

매년 4월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사이버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2014년 제정했다. 현재 몸캠피싱, 보이소피싱, 스미싱, 인터넷사기결재 등 범죄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사전예방 수칙만 철저히 숙지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선 첫 원칙은 출처 불명의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는 열어보지 않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광고서나 금융기관들은 절대 이메일이나 문자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중요한 고지, 또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한다. 최근에는 가짜 금융사 어플 번호로 전화를 하게 한 뒤 가짜 상담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신종 스미싱 피해자도 늘고 있다. 광고서나 은행의 문자 메시지를 받



김현걸 이사장

고 관심이 안되면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대표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몸캠피싱을 예방하려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팅어플은 피한다. 스마트폰은 쉽게 해킹될 수 있다.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클라우드 보관함에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 영상, 파일 등을 저장하지 않게 좋다.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개인PC에 보관한다.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이미지를 스마트

폰에 저장하지 않는 것도 예방수칙 중 하나다.

사이버거래에서 지나치게 싸거나 현금 거래만 요구하는 등 의심이 가면 경찰청 '사이버감' 앱을 통해 전화변호나 계좌번호가 사기로 신고된 적이 있는지 조회해 볼 수 있다.

한국사이버보안협회 김현걸 이사장은 "아무리 주의를 해도 사이버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한편 백신 통해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현대차 신형 쏘나타, 8일 출고 재개

현대차 8세대 신형 쏘나타(사진)가 품질 점검을 마치고 8일부터 출고를 재개한다. 현대자동차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완벽한 품질을 위해 출고 개시 전 정밀 점검을 실시했으며" "최종 점검을 마치고 8일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월21일 공식 출시한 신형 쏘나타는 개인화 프로필, 현대디지털키, 빌트인캠 등 다양한 첨단 신기술을 탑재해 사전예약(21일 기준)만 1만2323대를 기록할 정도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3월 24일 초기 인도 과정에서 소음진동소음(NVH)과 관련된 품질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점검에 들어가면서 출고

지연됐다. 현대차가 신형 쏘나타에 3세대 신규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정숙성, 승차감, 핸들링, 안전성, 디자인 자유도 등을 크게 개선시켰다"고 홍보해 소음진동과 관련한 초기 품질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었다.

현대차는 고강도 점검 결과 품질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음주부터 고객 인도를 재개한다. 점검 전 생산된 차량은 고



객에게 인도하지 않고 내부용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화산석으로 만든 이색 방향제 만나요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이 자연에서 채취한 천연 화산석으로 만든 '메추리 꼬리' 방향제를 선보였다. 공기구멍이 많은 화산석을 오일에 흡착시켜 방향하는 원리를 적용했다. 화산석은 중금속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으며 자체 흡착력, 탈취력이 좋은 소재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한화갤러리아